



변화하는 여가 트렌드와 대응 방향

전 해 영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

1. 개요

많은 직장인들이 주말, 공휴일, 휴가를 손꼽아 기다릴 것이다. 수면시간을 제외하면 하루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에서 벗어나 여가시간을 이용해 폭 쉬거나 평소 꿈꿔오던 짧은 여행을 떠나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이다.

이처럼 여가란 노동, 가사 등 사회적 의무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행해지는 휴식, 오락, 자기계발 등의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가활동은 노동 및 기타 사회적 활동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긴장을 풀어주고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

국내에서는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늘어난 자유시간과 자아실현 욕구가 맞물려 여가의 필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여기에 2004년부터 주5일제 근무가 단계별로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여가의 필요성을 인식한 세계 각국은 '국민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보유한 자원이나 국민 특성에 부합하는 여가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풍부한 환경자원을 활용하여 자연공원을 조성하고 90개 이상의 연방기관들이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증가, 이민자 및 청년층 증가로 급격한 인구변화를 겪고 있는 호주는 '조화롭게 살

기 프로그램(Living in Harmony)'과, '여가 낚시 커뮤니티 지원금 프로그램(Recreational Fishing Community Grants Programme)' 등 다양한 계층과 인종을 고려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가 장려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 단적인 예가 바로 주5일제 근무 시행이라고 할 수 있다.

주5일제 근무는 선진국 수준의 여가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2004년 7월 금융권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점차 시행사업장이 확대되어 2008년에는 주5일제 근무를 시행하는 비중이 50.8%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0월 매월 셋째 수요일을 '패밀리데이(가정의 날)'로 정해 정부부처 및 기업들에 가족간 소통 및 관계 회복을 독려하기 위한 정시퇴근을 권장하고 있다. 여기에 청소년 및 가족들의 여가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학교장 재량의 봄·가을 방학을 허용하는 한편 2011년부터는 전면 주5일제 수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토·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이 많아지면서 월요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높은 국민적 지지를 얻었다. 본 법안은 비록 지난해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올해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기대해 볼만하다.

이처럼 여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여가 장려 제도가 강화되는 가운데 본고에서는 국내 여가



문화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변화하는 여가 트렌드

가. 국내 여가문화 변천사

1970년대 이전까지 국내에서 여가란 부유한 상류층이 즐기는 활동 정도로만 인식되었다. 60년대 이전에는 농경위주 경제구조 가운데 6·25 이후 전후 복구에 여념이 없었던 상황 탓에 여가 개념 자체가 미비하였으며 60~70년대에도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산업화 및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여가를 즐길 물리적 여유가 부족했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하면서 1980년대 이후에는 여가의 대중화와 함께 다양한 여가 수요가 증폭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아시안게임(1986)과 올림픽(1988)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입어 각종 스포츠 및 해외여행, 기타 여가활동의 대중화가 이루어졌고 2000년대 들어서는 안정된 컴퓨터 보급과 초고속 인터넷 확산으로 인터넷게임, 웹서핑 등 새로운 형태의 여가양식도 생겨났다.<<표-1>>

나. STAR형 여가의 확산

이같은 여가의 시대적 변천사를 거쳐 2010년대는 자기계발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여가를 즐기는 STAR형 여가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STAR형 여가란 최근 들어 그 비중이 증가한 자기개발(Self-Development), 외모변신(Transform), 나홀로여행(Alone), 방콕(Rest-at-Home)형 여가를 의미한다. 이는 주5일제 근무가 정착되고 여가의 질(質)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가활동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라지고 개인이 각자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하여 휴가계획과 내용을 실천하는 여가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다.<<표-2>>

STAR형 여가의 첫번째 항목인 '자기계발형' 여가란 여가를 활용하여 업무 외 개인적인 관심사를 탐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평소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를 하거나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것이 '자기계발'의 대표적인 예다. '국민여가조사 발표'에 따르면 이같은 '자기계발'형 여가는 2003년 0.9%에서 2006년 0.6%까지 하락했다가 2008년에는 다시 1.1%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현대 사회의 급속한 환경변화 및 경쟁강도 심화로 자기계발의 필요

<표-1> 연대별 한국의 여가생활

	특 징	사회·경제적 여건
1960년대 이전	여가인식 부재	- 전후복구 및 원조부흥경제
1960년대	여가환경 기반 조성	- 도시화 및 산업화 진행 - 여가의 개념 태동
1970년대	관광자원개발	- 관광자원개발에 대한 정부 정책 확대 - 장기적인 관광종합계획 수립
1980년대	여가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 아시안게임, 올림픽, 자가용 보급과 맞물려 여가활동의 대중화가 이루어짐
1990년대	여가산업의 양적 팽창	- 자율화, 국제화로 인한 해외여행의 비약적 증대 - 게임방, 찜질방 등 상업적 여가시설의 확충
2000년대	여가산업의 진화	-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과 자아실현욕구 증가 -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기술의 비약적 발달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07여가백서' 2007. 인용 및 재정리

〈표-2〉 STAR형 여가의 확산

	내 용
자기개발 (Self-Development)	- 업무 외 개인적인 관심사를 탐구하는 여가활동 - 자격증 취득, 어학공부, 체험학습이 대표적인 예
외모 변신 (Transform)	- 몸짱·얼짱 트렌드를 타고 몸매관리, 외모관리에 나서는 여가 - 각종 스포츠, 다이어트, 헤어/네일 관리, 성형 등의 활동을 포함
나홀로 여행 (Alone)	- 여행사의 단체 해외여행 패키지를 이용하는 대신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을 세워 혼자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을 의미
방콕 (Rest-at-Home)	- 게임용품, 인터넷을 활용, 집안에서 취미·오락활동을 즐기는 여가 - 통화하기, 인터넷 서핑, 블로그 관리, 게임 등의 활동을 지칭

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사회적 요인으로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고용불안이 심화되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업무능력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자기계발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 중 하루평균 1시간 미만 투자하는 직장인의 비율이 2006년 39.8%에서 2010년 33.6%로 감소한 반면, 1~3시간 가량 투자하는 직장인의 비중은 같은 기간 53.7%에서 60.5%로 증가하였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자기계발형 여가는 기업들의 독려속에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임직원의 자기계발이 궁극적으로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르노삼성의 경우, 지난해 매니저급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휴가를 이용한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는 ‘매니저 학습휴가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으며 차후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¹⁾이라고 한다. 또한 국민은행은 직원들의 연차 및 휴가 사용을 독려하면서 자기계발 연수 및 와인/인삼 트레인, 도자기 체험 등의 교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²⁾

둘째, 변신형 여가란 여가를 이용하여 외모관리에 나서는 형태의 여가를 의미하며, 몸짱·얼짱 트렌드를 타고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하는 ‘여가백서’에 따르면 대표적인 몸가꾸

기 스포츠인 헬스의 참여비중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17.4(2006)→14.5(2007)→17.4(2008)), 몸매관리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요가의 경우 그 참여비율이 2006년 6.3%에서 2008년에는 11.8%까지 증대되었다. 그 외에도 육상/조깅/속보, 요가, 댄스스포츠 등의 참여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외모 변신(Transformation)’을 위해 미용관련 여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2006년 약 24.6%의 참여비율을 기록했던 미용관련 여가활동은 2008년 44.1%까지 증가하여 미용활동이 여가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휴가동안 하고 싶은 활동에 관한 대한민국축체대상의 설문조사 결과와도 상통하는데, 위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장 하고 싶은 활동으로 배낭여행, 지인 모임에 이어 다이어트 및 성형이 20.5%를 기록, 3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실력과 외모를 함께 갖춘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외모를 가꾸는데 동참하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 단적인 예로, 잡코리아가 870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94.1%의 응답자가 “면접시 지원자의 외모, 인상이 채용을 결

1) 카홀릭, ‘휴가도 즐기고 자기계발을 병행할 수 있게 배려한 르노삼성자동차’, 2009.10.13.

2) 머니투데이, ‘연봉 삭감 은행원 ‘가을 휴가’ 신드롬’, 2009.10.26.



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답하였을 만큼³⁾ 외모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사회적 인식 속에서 자신감 향상과 목표달성을 위해 외모 개선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셋째, 도시화·핵가족화로 개인주의 성향이 높은 현대인들이 ‘나홀로 여행’을 떠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에는 많은 여행객들이 여행사의 단체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였으나 여행이 보편화되고 여행정보에의 접근이 쉬워지면서 혼자서 여행을 떠나는 ‘나홀로 여행(Alone)’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05년 조사결과 13.6% 정도였던 ‘나홀로 여행’ 비중이 2008년에는 26.6%으로 약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같은 추세는 자기개성이 강하고 단체활동을 부담스러워하는 현대인의 ‘개인주의’ 경향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공업화 및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가계 구성원 수가 감소하고 개인의 발언권과 의견이 중시되면서 개인의 독립성과 개인성향이 두드러지는 ‘개인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같은 개인화는 직장인의 50% 이상이 스스로를 ‘코쿤족(cocoon, 사회적인 접촉을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활동을 혼자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의 사람들)’이라고 답변한 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다.⁴⁾ 이들은 편하고 의견조율이 필요없다는 점에서 홀로 활동을 즐기며, 여행에 따른 부담감이나 위험이 감소하면서 ‘나홀로 여행’에 나서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나홀로 여행은 개인의 맞춤형 여행계획으로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외에서의 여행시 사고·사건에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워 자칫 여행객 개인의 안전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넷째, IT기술의 발전으로 집에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진 가운데 특히 지난해 경제불황으로 ‘방콕

형’ 여가가 늘어났다. ‘방콕(Rest-at-Home)’족이란 집에서 편하게 휴식하면서 가족과 화목을 도모하고 신체적 재충전을 추구하는 휴가를 선호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각종 게임용품, 인터넷의 생활화로 굳이 집밖을 나가지 않아도 원하는 취미·오락 활동을 즐길 수 있어 방콕형 여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문화정책연구원의 여가백서에 따르면 ‘잡담/통화하기, 문자 보내기’, ‘인터넷 서핑/채팅’ 등 집에서 여가활동 참여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2000년 이후에 대중화된 인터넷 서핑/채팅, 게임, 미니홈피/블로그 관리 등은 2008년 각각 참여비중이 48.8%, 55.5%, 33.6%를 기록하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2008년말부터 본격화된 경기침체로 가계수입이 줄고 고용률이 감소하면서 휴가를 포기하고 집에서 휴가를 대신했던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스테이케이션(Staycation, Stay와 Vacation의 합성어로 집에서 휴가를 보낸다는 의미)이라는 용어도 등장하였다.

3. STAR형 여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STAR형 여가의 확산은 국내 여가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자기계발형 여가의 확산은 성인대상 교육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인 G마켓이 네티즌 5,4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기계발 학습방법으로는 온라인 강의 등을 활용한 독학(44%), 전문학원(21%), 그룹스터디(12%), 1대1 과외(8%) 등이 있다.⁵⁾ 즉, 자기계발이 활발해지면 온라인 수강이 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 교육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3) 씨티신문, “‘인상·외모가 채용당락에 영향’ 취업준비생들 이마·코 성형 선호”, 2010.1.4

4) 한겨레, “직장인 54.9% “난 혼자자 좋은 코쿤족””, 2007.6.27.

5) 한국경제, “공부하는 이유 1위는?... 男 ‘취업·승진’·女 ‘자기계발’”, 2010.1.28.

들째, 외모관리 열풍은 성형외과를 포함한 뷰티 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성형 수요 증가로 성형외과는 2003년 509 개소에서 699개소로 증가하였으며 피부관리, 네일관리 등 관련 뷰티산업이 성장하면서 피부과의 경우 2003년 713개소에서 2008년 945개소까지 늘어났다. 마찬가지로 각종 스포츠 인프라와 네일/헤어시설 등 외모관리 업체들이 성장할 여지가 있다.

셋째, 나홀로 여행족의 증가는 반대로 여행사 이용객의 감소를 의미한다. 나홀로 여행족들은 온라인 카페 등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접하고 홀로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여행사의 대부분 상품이 패키지 상품이라 나홀로 여행족들의 여행 니즈를 부합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규모의 축소를 막고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기 위한 여행 산업의 노력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방콕족의 증가는 게임, TV, 영화, 소매유통업, 외식업 등 집이나 가까운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여가산업의 매출을 도모할 수 있다. 예로, 게임산업은 2003년 7,541억원을 기록했던 온라인게임 산업은 2008년 2조 6,922억원까지 성장하였으며 지난해 현대백화점의 지난해 7월 1일부터 26일까지 구매표객의 평균 방문횟수는 2.68회로 지난해의 2.46회보다 8.9% 늘었으며 식당가 등의 매출도 전년동기대비 10% 이상 증가하는 등, 스테이케이션 특수를 누렸음이 보도된 바 있다.⁶⁾

4.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제언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2만불, 3만불로 늘어나면서 일반 국민들의 여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여가산업의 활성화, 국내산업의 서비스화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건전한 여가문화의 조성

및 여가산업 발전을 위한 몇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정부는 여가정책 개선, 뷰티산업에 대한 인식 변화, 자국민 해외여행 안전체제 마련 등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높은 여가수요에 비해 여가 인프라 및 산업 경쟁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해외관광객 유치에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한 여가수요가 언제든지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지난 몇년간 여가산업이 꾸준히 발전해왔으며 지난해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해외여행이 줄었다는 보도가 있긴 하다. 하지만 경제위기가 한풀 꺾이고 해외여행이 보편화된 요즘, 휴식과 쇼핑, 간단한 미용기술까지 해외에서 해결하려는 수요가 관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여가산업의 고용창출 및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여가산업의 개발 및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요식업, 숙박업소 등의 여가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디자인 개발지원, 국내외 홍보대행 등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요구되며 해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旅館(りょかん, 료칸), 老舗(らいせ, 시니세)⁷⁾ 등 역사와 문화체험을 융합시킨 전통서비스업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뷰티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뷰티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과거 사치소비 산업으로 치부되었던 뷰티산업이 이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건강과 외모 개선을 위해 운동, 미용, 성형 등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뷰티산업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뷰티산업의 확장세와 반대로 불만족 사례 또한 일정규모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자칫 산업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성형 불만족과 관련한 소

6) 머니투데이, “불황·신종플루, ‘스테이케이션족’ 늘다”, 2009.7.29.

7) 일본의 旅館(りょかん, 료칸)이란 일본식의 구조 및 설비를 갖춘 숙박시설을 지칭하며, 老舗(らいせ, 시니세)는 오래된 역사를 가진 점포를 의미함. 이 두 업종은 문화·역사 관광과 결합되어 고부가가치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비자 상담 건수는 2006년 1,901건, 2007년 1,719건, 2008년 1,698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의 미용을 위한 국내 방문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불만족 사항은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시술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주의사항의 사전 공지를 엄격하게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대책 및 산업발전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출국자의 위치파악 서비스 개발, 상시 대응체계 마련 등이 요구된다.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각종 안전사고 및 테러에 맞닥뜨릴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해외에서의 사고는 소통의 어려움 및 해당 국가에 대한 사전 지식 부재로 해결이 특히 어려워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해외여행객의 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는 기업들에 대한 제안이다. 기업들은 임직원들의 자기계발형 여가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은 자기계발형 여가를 장려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업무능력 및 애사심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기업들은 자기계발형 여

가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임직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여러 업체들간의 협력을 통한 여가 프로그램 운영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여행업체 및 기타 여가산업체는 나홀로 여행이 증가하는 트렌드에 대응하여 국내관련 여행상품의 개발이 요구된다. 나홀로 여행 인구를 위해 요식업은 1인용 식사메뉴 개발, 숙박업소는 1인용 객실 또는 개인 사물함이 제공되는 숙박시설을 확대하는 등 각 산업별로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 한편 나홀로 여행이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여행사들은 나홀로 여행객들을 위한 1인 케어와 체계적인 개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들도 만족스러운 여가를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해외여행시 확실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다양하고 알찬 여가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 있다. 새로운 여가활동에 도전하고 싶다면 전문가들의 안내에 따라 시작하는 것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으니 고려해 볼만하다. 또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을 경우 안전한 지역인지를 꼼꼼히 살피고 비상연락망을 반드시 숙지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

시사 용어 해설

▶ 소버린 리스크

한 나라의 정부나 공공기관이 국제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렸거나 지급보증을 한 경우 발생하는 리스크. 국가주권자(Sovereign)에 채무상환에 관계된 위험(Risk)이 따르기 때문에 이위험을 소버린 리스크라 부른다. 재정상황이 취약하거나 해외차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소버린 리스크에 노출된다. 1970년대 개발도상국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자금을 빌리기 시작하면서 많이 쓰이게 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부 선진국도 소버린 리스크의 위협에 노출되는 경우가 생겼다. 예를 들어 빌린 돈을 최종적으로 지불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혁명이나 폭동 등 정치적인 이유로 교체된 뒤 새로 출범한 정부가 채무의 계승을 거부하는 경우나 급격한 경제악화로 국가가 상환불능상태에 도달한 경우 소버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